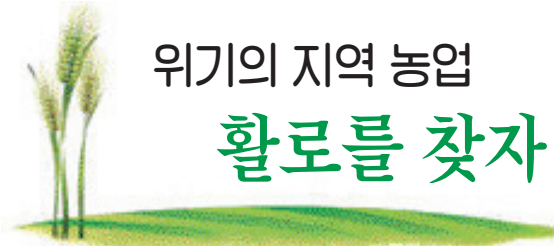




박종석·정해영 부부가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 담양 '와우딸기' 박종석·정해영씨 부부

# 새벽에 탄 무농약 딸기 서울 가락시장 최고 명품

지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유류대 및 농약·비료 값 상승과 함께 수입 농산물의 급증으로 인해 농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기술과 남다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농가들을 소개하고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주민들은 '와우딸기 작목회'를 조직해 재배 노하우를 스스로 개척해왔다. 현재 80여 명의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280동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40~50대가 60%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83년에는 저온에서 꽃이 핀 딸기의 수량이 어렵자 꽃벌 수정이라는 해결책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게 돼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딸기를 생산하게 됐다.

새벽 5시,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박종석(48)·정해영(47) 부부의 딸기재배 비닐하우스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신선한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 종이 트기도 전에 딸기 수확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박씨는 "온도가 상승하기 전인 새벽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전 11~12시에 탄 딸기에 비해 열매 표면이 단단하고 신선해 이를 정도는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덕분에 박씨 부부를 비롯해 와우작목회에서 출하하는 '와우딸기'는 가락동 공판장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딸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경매에 나오는 예우를 받고 있다. 가격도 2kg에 2만원선으로 다른 딸기 1만 3~4천원에 비해 15% 이상 높게 받을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신선도·굵기·당도 '맞춤수확'

### 한해 8천여만원 고수익 거둔

군 재대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를 거들다 86년부터 딸기농사에 뛰어들었다. 15평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 시작한 딸기 농사 첫해에 223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농사에 재미를 붙였다. 당시 소한 마리 값이 55만원 하던 시절이었다.

올해로 24년째인 박씨는 현재 2만3천140㎡(7천여 평)의 논농사와 함께 2천645㎡(800여 평)의 딸기농사를 짓고 있다. 벼 재배는 한 장소에서 계속 작물을 재배할 경우 나타나는 연작피해를 없애고 염류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매년 10월, 벼 수확을 끝낸 논에 비닐 하우스 뼈대를 세우고 이랑을 높게 올린 후 딸기 모종을 이식한다.

비닐 하우스 2동에는 일본 품종인 '육보', 다른 2동에는 국내육종 품종인 '설향'을 재배하고 있다. 설향은 육보보다 수확이 한 달 정도 빨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벼농사 소득으로 비료대 등 빚을 갚고 나면 농가에서 11~1월은 돈이 궁한 시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기출하할 수 있는 '설향'은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박씨는 벼농사 1천500만원, 딸기 농사 6천500만원 등 8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와우리는 76년부터 하우스에서 딸기농사를 시작한 곳.

또 몇 해전에는 시험 삼아 '꽃 속음'을 시작했다. 배꽃을 따주어 양질의 배를 재배하는 배농가와 마찬가지로 한 줄기당 4~6개의 꽃만 남기는 것이다. 그 결과 크기가 크고 당도도 높은 고품질의 딸기가 생산돼 가격도 높게 받게 됐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토마토·메론·수박 등 고온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딸기로 전환할 만큼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다. 박씨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기름 보일러대신 지하 30m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수막재배'와 3중 필름을 사용해 개화기 10~12도, 수확기 6~7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씨는 "딸기는 당도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토양에 썩과 미나리액을 공급하고, 퇴비 등 토양 관리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라고 말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종환)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와우딸기 작목회'를 설립 현장적용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좋은 토양관리,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 수경재배 등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박씨를 비롯해 와우딸기 작목회의 새해 바램은 265㎡(80평) 규모 '저온 저장고' 건립이다. 3월에서 출하가 끝나는 6월 초까지는 고온으로 신선도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부나 군의 지원을 받으려면 공동 선별과 공동 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와우 딸기재배 농가에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바라고 있다.

현재 와우 작목회는 농가별로 상품을 '특품·상품·보통'으로 나누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의 실명제와 전화번호를 적어 '와우딸기'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박씨 부부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났으면 합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009 2월 1일

##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 광주 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

3년 3개월째 지속해서 개최하는  
대한성형외과협회 광주지부 주최로 새해에 첫 번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5조 천 성형외과</b> ☎ 225-0118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김환익 성형외과</b> ☎ 225-9977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백화 성형외과</b> ☎ 332-30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최관철 성형외과</b> ☎ 228-8875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류봉수 성형외과</b> ☎ 234-000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세 권 성형외과</b> ☎ 336-81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최석현 성형외과</b> ☎ 224-990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최종진 성형외과</b> ☎ 383-007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신세계 성형외과</b> ☎ 397-111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현대성 성형외과</b> ☎ 224-6583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케디컬 성형외과</b> ☎ 353-525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고 호 성형외과</b> ☎ 223-70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SM 성형외과</b> ☎ 376-411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백문고 성형외과</b> ☎ 228-300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임우성 변 성형외과</b> ☎ 383-7800-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김영길 성형외과</b> ☎ 227-3777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우형근 성형외과</b> ☎ 364-000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별 차 성형외과</b> ☎ 224-71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최택현 성형외과</b> ☎ 226-820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8	<b>김종식 성형외과</b> ☎ 384-777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b>신지호 성형외과</b> ☎ 222-022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 축성 재배 용이 ... 로열티 지금 걱정도 없어

### ■ 딸기 '설향' 이란

딸기 '설향'(雪香)은 식품품질 보호회 도입을 앞두고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2006년 개발한 신품종이다. 축성(促成) 재배용으로 적합하며 흰가루병 등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편으로 재배가 용이하고 수량이 많은 편이다.

전국 대비 6%의 딸기를 재배하는 담양군의 경우 와우딸기 작목회를 '남부지방 설향 시범단지'로 지정하는 등 국산품종 우량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설향 보급률이 2006년에는 10%였으나 2007년에는 42.5%, 2008년에는 65.5%에 달하는 등 일본품종 '육보'(레드필)를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다.

딸기 로열티 분쟁은 정부가 2002년 1월 세계 100여

국가로 구성된 국제 식품품질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예고됐다. UPOV에 가입한 국가는 신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담양 농업기술센터 역시 2006년부터 신품종 육성에 착수했다. 일본·유럽·미국 등지의 40여개 유전자원을 수집해 2년째 계통선발을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교배조합을 통해 12계통의 우량개체를 선별해 생산력 검증시험을 거쳐 3계통으로 압축해 갈 계획이다.

이철규(40) 담양 농기센터 농업연구사는 "병충해에 강한 고품질의 신품종을 육성해 담양 딸기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